

부진 끊고 연승 잇고... 헥터 '미소 다짐'

T 타이거즈 전망대

돌아온 헥터가 여름 부진 탈출에 나선다. KIA 타이거즈가 7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넥센 히어로즈와 만난다. 허리 부상으로 빠졌던 헥터가 복귀해 넥센 한현희와 마운드 맞대결을 벌인다.

KIA는 주말 '선두' 두산 베어스와의 홈 2연전에서 모두 승리를 거머쥐는 등 지난주 4승 1패의 전적을 내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선발진이 만든 상승세라는 의미가 있다.

2군에서 재정비를 한 임기영이 6.1이닝 1실점으로 시즌 6승에 성공했고, 임창용은 5이닝 1실점으로 세 번째 선발 등판 끝에 KBO리그 두 번째 최고령 승리투수가 됐다.

한승혁이 연승을 잇는 데는 실패했지만 양현종이 8월 첫 출격에서 승리를 추가하면서 타이거즈 좌완 최초로 5년 연속 10승 고지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5일에는 선발로 나선 팻딘이 3회 1사에서 양의지의 타구에 오른쪽 정강이를 맞으면서 일찍 물러났지만, 3.2이닝을 피안타 없이 3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은 임기영을 시작으로 김윤동-윤석민이 불펜의 힘을 과시하며 6-3 역전극이 만들어졌다.

모처럼 기분 좋은 승리가 쌓였지만 앞선 대구 원정 싸움이 3연패 여파로 KIA는 여전히 7위에 머물고 있다. 다행히 4위부터 7위까지의 격차가 크지 않다. 삼성이 1경기 차 6위고, 5위 넥센은 1.5경기 차 밖에 있다. 추락세의 4위 LG도 3경기 차까지 좁혀졌다.

헥터가 선발진 호투 릴레이에 힘을 보태야 한다.

KIA, 이번주 넥센-롯데-SK 6연전
6위 삼성과 1경기·4위 LG와 3경기차
지난주 4승 1패...분위기 반전 성공
헥터 오늘 출격...호투 릴레이 가세

■ KBO중간순위 (6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1	두산	104	68	0	36	0.654	0.0
2	SK	103	59	1	43	0.578	8.0
3	한화	106	59	0	47	0.557	10.0
4	LG	107	53	1	53	0.500	16.0
5	넥센	109	53	0	56	0.486	17.5
6	삼성	107	50	3	54	0.481	18.0
7	KIA	102	48	0	54	0.471	19.0
8	롯데	103	45	2	56	0.446	21.5
9	KT	104	43	2	59	0.422	24.0
10	NC	107	43	1	63	0.406	26.0

폭염이 극성을 부린 7월 헥터는 4패만 기록하면서 8승에 머물고 있다. 7월 4경기의 평균자책점은 5.64. 여전히 한화와 삼성에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고개를 숙였다. 헥터는 7월 4경기에서 22.1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4개의 홈런 포함 34개의 피안타를 허용하면서 위기를 자초했다. 야수진의 불안한 수비와 물방망이도 헥터의 힘을 빼지게 했다.

최근 4경기에서 20실점을 했지만, 이 중 헥터의 책임 점수는 14점이었다. 야수진의 실수 연발 속에 주지 않아도 될 점수들을 내렸다.

전반기 마지막 등판이었던 7월 11일, 헥터는 '천적' NC에 12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면서 개인 한 경기 최다 탈삼진 기록을 갈아치웠다. 탈삼진 행진 속 6회를 1실점으로 막았지만, 3루수 최원준의 실책으로 시작된 7회 고비를 넘지 못했다. 팀 타선도 침묵하면서 헥터는 6.2이닝 4실점(1자책점)으로 패전투수가 됐다.

7월 24일 한화 원정에서도 역시 3루수 최원준의 실책으로 시작된 2회 3실점으로 흔들렸다. 이날 4회를 끝으로 마운드에서 물러난 헥터의 기록은 4이닝 8피안타(2피홈런) 2볼넷 6탈삼진 5실점(2자책점)이다.

타선의 지원도 없었다. 헥터가 등판한 4경기에서 KIA 타자들은 한화 샘슨, NC 왕웨이중, 삼성 양창섭, 한화 헤일의 공략에 실패하면서 단 4점을 내는 데 그쳤다.

잘 쉬고 돌아온 헥터는 폭염을 피해 돔 구장에서 복귀전을 치른다. 피안타를 줄이고 깔끔하게 이닝을 풀어야 한다. 그리고 상승세의 타선도 부진을 만회하고 헥터의 연패 탈출에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수비로 헥터를 윤택했던 최원준의 집중력도 필요하다.

한편 KIA는 이번 주 고척 원정을 시작으로 광주(롯데)-문학으로 이어지는 험난한 2연전 일정을 소화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헥터

항아리 벙커 빠져 트리플 보기



유소연이 6일 오전(한국시각) 영국 잉글랜드 랭커셔주 리덤 세인트 앤스의 로열 리덤 앤드 세인트 앤스 골프 링크스에서 열린 LPGA투어 브리티시여자오픈 4라운드에서 드라이버로 티샷 후 공 방향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유소연 LPGA 브리티시 오픈 3위 ... 박성현도 벙커 빠져 우승 꿈 날려

유소연이 시즌 네 번째 메이저 대회인 브리티시 여자오픈 골프대회(총상금 325만 달러)에서 단독 3위를 차지했다. 유소연은 6일 영국 잉글랜드 랭커셔주 리덤 세인트 앤스의 로열 리덤 앤드 세인트 앤스 골프 링크스(파72-6585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2개, 트리플보이 1개를 묶어 2언더파 70타를 쳤다. 최종합계 13언더파 275타를 기록한 유소연은 단독 3위로 대회를 마쳤다. 유소연은 3라운드까지 선두에 2타 차 3위를 달려 내일 메이저 우승까지 바라봤다. 개인 통산 메이저 3승을 노린 유소연은 그러나 3번 홀(파4) 트리플보이에 발목이 잡히는 바람에 3위에 만족해야 했다. 유소연은 3번 홀에서 티샷이 왼쪽 벙커로 향했고, 레이업으로 공을 빼놓은 뒤에 시도한 세 번째 샷이 그린에 미치지 못했다. 그린 앞에서 시도한 네 번째 샷은 그린을 넘겼고 결국 5타 만에 공을 그린에 올린 뒤 두 차례 퍼트하면서 파 4홀에서 7타를 쳤다. 이후 4번 홀(파4)에서도 보기를 적어내면서 우승 도전이 쉽지 않아졌다. 3라운드까지 선두에 3타 뒤진 공동 4위였던 박성현도 4, 5번 홀에서 연속 더블보기가 나와 우승권에서 멀어졌다. 4번 홀(파4)에서 그린 앞 벙커에서 두 번이나 벙커샷을 한 공이 다시 벙커로 돌아오는 바람에 맥이 풀렸다. 결국 박성현은 최종합계 5언더파 283타로 공동 15위까지 밀려났다.

유소연은 3번 홀에서 티샷이 왼쪽 벙커로 향했고, 레이업으로 공을 빼놓은 뒤에 시도한 세 번째 샷이 그린에 미치지 못했다. 그린 앞에서 시도한 네 번째 샷은 그린을 넘겼고 결국 5타 만에 공을 그린에 올린 뒤 두 차례 퍼트하면서 파 4홀에서 7타를 쳤다. 이후 4번 홀(파4)에서도 보기를 적어내면서 우승 도전이 쉽지 않아졌다. 3라운드까지 선두에 3타 뒤진 공동 4위였던 박성현도 4, 5번 홀에서 연속 더블보기가 나와 우승권에서 멀어졌다. 4번 홀(파4)에서 그린 앞 벙커에서 두 번이나 벙커샷을 한 공이 다시 벙커로 돌아오는 바람에 맥이 풀렸다. 결국 박성현은 최종합계 5언더파 283타로 공동 15위까지 밀려났다.

유소연은 홈 코스의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신인 조지아 홀(잉글랜드)에게 돌아갔다. 올해 22살인 홀은 최종합계 17언더파 271타로 3라운드까지 1위였던 폰아논 팻팻(태국)을 2타 차로 따돌리고 LPGA 투어 데뷔 시즌에 메이저 첫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우승 상금은 49만 달러(약 5억5000만원)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공동 3위를 했던 홀은 LPGA 투어 신인상 포인트 300점을 추가, 576점으로 2위에 올라 889점으로 선두인 고진영과 격차를 좁혔다. 잉글랜드 선수가 브리티시 여자오픈에서 우승한 것은 2004년 카렌 스타플스 이후 올해 홀이 14년 만이다. 2009년에는 스코틀랜드의 카트리나 매슈가 정상에 올랐다. 한국 선수로는 유소연 외에 김세영이 9언더파 279타, 세계 랭킹 1위 에리아 주타누간(태국) 등과 공동 4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우승자 김인경은 이번과 288타, 공동 39위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오~ 철벽男

오승환, 밀워키전 이적 첫 세이브

오승환(콜로라도 로키스)이 새 팀에서도 수호신으로 거듭났다. 오승환은 6일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밀워키 브루어스와 방문경기에서 팀이 5-4로 앞선 연장 11회말 등판해 1이닝 2피안타 무실점으로 승리를 지켰다. 콜로라도 이적 후 5경기 만에 거둔 첫 세이브다. 오승환의 시즌 성적은 4승 3패 3세이브 16홀드 평균자책점 2.42가 됐다. 오승환은 첫 타자 트레비스 쇼에게 좌익수 앞 안타를 내준 뒤 브라운은 중견수 뜬공으로 처리했다. 이어 스호프를 상대로는 빗맞은 안타를 내줘 1사 1:2 루 동점 위기에 처했다. 오승환은 흔들림 없이 크라츠로부터 1루수 땅볼을 유도해 병살타로 팀 승리를 지켰다. 1루수 이언 데스몬드도 타구를 잡아 2루 커비에 들어간 유격수 트레버 스토리에겐 송구했고, 다시 스토리가 1루에 재빨리 뛰어든 오승환에게 송구했다. 오승환은 밀워키 더그아웃 쪽으로 향한 송구를 온 힘을 다해 잡아내는 호수비를 펼쳤다. 최초 판정은 세이프였지만, 비디오판독 끝에 아웃이 인정됐다. /연합뉴스

류, 복귀준비 '착착'

류현진, 내일 마이너리그 재활경기

빅리그 복귀에 박차를 가하는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두 번째 재활 등판 일정이 잡혔다. MLB닷컴은 6일 "류현진이 8일 혹은 9일 산하 더블A 구단인 털사 드릴러스 소속으로 코퍼스 크리스티 휴스(휴스턴 애스트로스 산하)와 방문경기에 등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류현진은 3일 다저스의 산하 싱글A 구단인 랜초 쿡카몽가 웨이크스 소속으로 선발 등판해 4이닝 2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첫 번째 재활 등판에서 성공적으로 호투한 류현진은 두 번째 등판에서 5이닝 혹은 최대 75구를 던질 예정이다. 이번 시즌 메이저리그 6경기에서 3승 평균자책점 2.12로 호투하던 류현진은 5월 3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경기 도중 사타구니 통증을 느껴 마운드를 내려갔다. 류현진이 두 번째 재활 등판에서도 큰 문제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메이저리그 복귀에 성큼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